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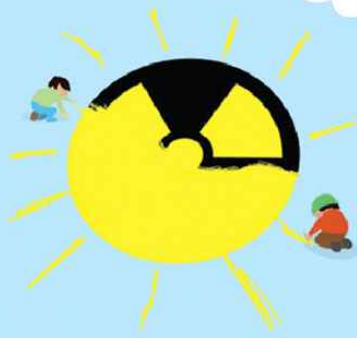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창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2016년 10대 뉴스 ① ②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김용민 브리핑 오프닝은 하루 두 건씩 2016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① 경주 지진...원전 공포



지난 9월12일 오후8시33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처럼 강진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에 피해액이 130억에 그쳤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불안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냐 하면 경주가 활성 단층이며 그 중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탈핵 주장 학자들은 원전 사고는 예고된 참사라며 노후 원전의 즉각 가동 중단과 신규원전 설립 계획 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참사를 다룬 영화 '판도라'는 관객 동원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② 4.13총선...새누리당 2당 추락

두 번째, 4.13 총선입니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다수당으로 떠오른 것 또 이른바 진보진영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12년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박근혜 가까운 사람을 포진시키기 위해 자행한 새누리당 친박 패권주의의 막장공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나중에 내쫓은 무소속을 다시 받아서 129석으로 만 들었지만 오늘 내일 분당되면서 100석 밑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미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내쫓은 세력과, 사수하는 세력으로 양분됐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26일(월) 1부 | '급가속' 특검, 박근혜이재용 턱밑까지 왔다

[오프닝] 2016년 10대 뉴스 ① 경주 지진 ② 4월 총선 여당 참패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네티즌 수사대 자로 "세월호, 외부총경으로 침몰"
- 박헌영 "최순실, 김기춘을 '늪은 너구리'라며 경계했다"
- "최태민 사망직후 최순실 자매 재산 급증"...타살설 검증 필요성
- 특검 "문형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진술 확보
- 우병우, 검찰 착수 이석수에 "형 어디 아파?"
- [뉴스듣기능력평가] 재접화된 세월호 참사 원인...침몰 이유는?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가 자
- 러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사고 원인 IS 배후설에 시선 집중
-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논란되니 냉금 뒤집어
- [경제의 속살] 이만배 민중의소리 기자
- 최순실 비자금 10조 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 [월요 경제학] 신뢰의 사회를 만들 경제학적 방법은?
- [공화국 논평] '아동 윤운' 정두언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세월호 다큐 - '세월X'

“세월호 침몰? 잠수함 충돌 가능성 높아”

'자로'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월X'의 골간이 공개됐다. 자로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증거가 된 포털 아이디를 찾아낸 주역이다. 쿵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는 증언, 진도 VTS에서 충돌 직후 대형 물체가 포착됐다는 점을 근거로 잠수함 같은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영화 '인텐션'을 준비하는 김지영 감독의 다큐멘터리도 석 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순실 반드시 처벌해야

한국일보 “최순실, 김기춘 ‘너구리’ 비하”

최순실의 측근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늑은 너구리’라고 지칭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진 반면 최순실이 필요할 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이용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박헌영 과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눈치 채고 최순실이 시키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기춘이 난 최순실 모릅니다 이런 증언은 거짓임이 또 드러났다.

東亞日報 崔, 압수수색 전 집 금고 2개 치워

최순실이 사무실에 뒀던 금고 외에도 자택에 소형 냉장고 크기의 금고 2개를 보관하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에게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순실이 항상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두고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세계일보 “최태민 사망 후 딸 재산 급증”

최순실과 자매들의 재산이 부친인 최태민이 사망한 1994년 직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먼저 최태민의 부인 임선이 써는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실 부부에게 빌딩을 물려줬다. 아울러 최순실은 1996년에 소득세를 무려 6000만 원 가량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년 경력의 한 세무사는 “근로소득이라면 대기업 CEO급이나 돼야 낼 수 있는 소득세”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보도, 최태민 타살설도 있는데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JIBC 독일 경찰, 교민 계좌 추적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최순실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독일 검찰은 최순실이 현지에서 세운 법인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는데 최근에는 독일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교민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곳은 '크리미널 폴리차이'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크리미널 폴리차이'는 주로 계좌추적을 통해 금융 범죄를 수사하거나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한 기초 수사 등을 맡는 경찰 조직이다.

고삐 당기는 특검

중잉일보 특검, ‘박근혜 뇌물죄’ 정조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칼끝이 조만간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제3자 즉 최순실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서다. 또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6월 비공개 회의를 연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보건복지부 측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합병에 대한 의견을 낼 외부 전문가들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겨레 김종, 삼성과 ‘정유라 지원’ 논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 실무를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지난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났다. 시기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를 갖기 직전이다.

또한 박상진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은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제3자 뇌물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한겨레 특검, 삼성 2인자 노려 이재용 압박

이어서 한겨레 보도.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삼성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칼은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까지 치고 올라갔다. 장충기 사장 선에서 머물던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까지 바짝 압박해 들어간 것이다.

형이 걱정대서...

朝鮮日報 우병우, 이석수에 “아픈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 받고 모욕감이 안 들 수 없겠지? 또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경찰 등 국가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헌재 보수성 우려

경향신문 “헌재 판결? 이미 다 나온 듯”

탄핵심판 분야 최고 권위자인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은 민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2004년 탄핵은 국회가 정파적 입장에서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재판관 구성은 탄핵심판에 끼치는 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의 소추 사유는 구체적 헌법 위반과 엄중한 법률 위반이 포함돼 있어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몸 불살라 정권교체 돕나

중앙일보 박연차 “반기문에 성의 표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가 시작된 배경과 수사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은 대검 중수부에 돈을 준 정치인과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고 해당 리스트엔 반기문 총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일부는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됐다. 또한 박연차 전 회장은 반기문 총장에게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의를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주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자금이지.

‘18원’ 이완영 또

중앙일보 수사 무마 위한 협박전화까지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인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의원에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성주군의회 김명석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을 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완영 의원을 수사 중이다. 그러자 이완영 의원의 동생과 측근은 김명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도 직접 김명석 의원에게 검찰에 다 알아봤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정부의 포털 장악

중앙일보 네이버, ‘실검 조작’ 드러나다

네이버가 하루 평균 9개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발간한 ‘네이버 검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또한 네이버가 공개한 ‘실시간 검색어 규정’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정부 부처나 사법기관이 특정 검색어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실검’을 임의로 삭제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촛불, 삶의 현장에서 타올라야”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한겨레 칼럼 “광장의 촛불, 삶의 현장에서 타올라야”다.

“1000만 촛불의 기적은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광장민주주의’가 아직 ‘현장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을 처연하게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었지만, 정작 실제 삶이 영위되는 ‘현장’에서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의 연체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이러한 심성을 내면화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하사라도 권위주의와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이 광장의 촛불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서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전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바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재판관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위원들입니다. 본 회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 9월, 박근혜 정권의 통치 행태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막아보자는 뜻으로 조직되어 활동해왔습니다. 그동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의한 정권에게 여러 고언을 해 오던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는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촛불항쟁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며 현재의 재판관님들께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헌법을 유린하고 수많은 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확정할 무거운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밝혀진 진실만으로 대통령은 너무 많은 헌법과 법률을 어겼고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특검에 의해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생업을 빼앗겨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사법 어느 한 구석도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되어 국정은 혼란하고 국민들의 삶의 피해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루

속히 대통령을 파면하여 망가지고 부서진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정체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곡히 호소하며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국정 공백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국민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도 박 대통령측에서는 법률적 시비를 통해 어떡해든 하루라도 탄핵절차를 늦추어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악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도 형사재판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란 형사처벌이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헌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신속한 탄핵 결정을 내려 지금 시작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역사의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불출된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세워진 국가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소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 수 없는 엄중한 역사적 시점이라는 것을 재판관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신속하게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책임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성탄과 새해를 맞아 재판장님들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김상근 목사와 위원일동